

특 집 / 현대인의 피부질환

지루(脂漏) 피부염



노 병 인

머리를 감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비늘같은 것이 떨어져거나,
간혹 이 부위의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지루성피부염이다.

머리를 감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지저
분한 느낌을 주거나 기름기가 많은
딱지가 생기며 간혹 이 부위의 머
리가듬성듬성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심한 비듬으로 생각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지루 피
부염으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
여 좋아지고 나빠짐을 되풀이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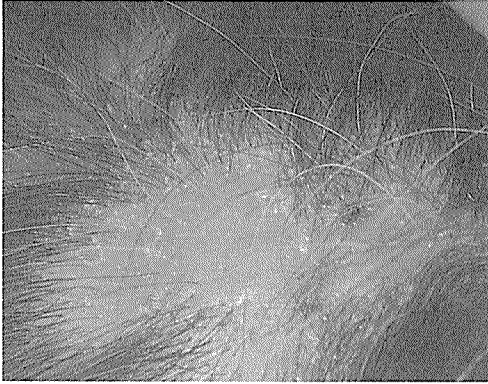
이 질환은 건성과 유성의 두가
지로 나눌 수 있다. 마른 찝겨 모양
의 비늘(인설)이 생겨 머리 전체
로 퍼질 수 있는데 이것을 건성 비
강진(枇糠疹)혹은 비듬이라 한다.

유성인 지방성 비강진은 개기름
이 흐르는 것 같은 회색의 두꺼운
딱지(가피)를 동반하여 이때 병변
부위의 머리털이 함께 빠지는 경향
이 있고 처음엔 앞머리쪽에서 시작
해서 점차 정수리로 퍼질 수 있다.
지방성 비강진은 바로 조기 남성형
대머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건진(乾癬)에서 발
생하는 두꺼운 회백색의 인설(鱗
屑)과 감별하여야 하는데, 건진은
제거할 경우 약간 출혈이 있고 탈
모와 소양증이 없으며 팔꿈치 및
무릎 등 몸의 다른 부위에 피부 병
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머리에 황색의 지겨

기가 서로 엉겨 붙고 지방질이 있는 딱지를 동반한 경우가 있는데 흔히 할머니들이 “쇠똥딱지”라고 부르는 유가(幼痂·Cradle Cap)이다. 역시 지루 피부염의 한 형태로 유아형이다.



피증(紅皮症)과 비슷하여 감별을 요한다.

간혹 이 질환은 파킨슨병, 당뇨병, 지방성 설사, 흡수 불량 증후군 및 간질 등의 내부질환과 같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 질환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간

지루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머리 외에도 얼굴(눈썹, 귀, 코 주위), 앞가슴, 겨드랑이, 유방, 배꼽, 사타구니 및 엉덩이가 있다. 콧밥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귀에 생긴 지루 피부염은 흔히 곰팡이 감염에 의한 귀의 외이도염으로 오진될 수 있고 더 진행될 경우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피부가 갈라지기도 한다.

얼굴에서는 특히 눈썹주위에 비듬이 생기고 그 주위의 피부는 홍색을 띠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속눈썹 부위에 발생하여 안검염(眼瞼炎)이 생길 수도 있고 결막이 충혈될 수도 있다. 코주위의 주름부위에 비듬을 동반한 황색 내지는 붉은 색의 병변이 생길 수 있다.

간혹 전신성으로 발생했을 때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박탈성 피부염 상태로 될 수 있는데 특히 신생아에서 잘 발생된다. 이 경우 홍

**지루성 피부염증
유성인
지방성 비강진은
조기 남성형
대머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혹 과도한 피지의 분비로 얼굴에 여드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피부 표면에 기름기를 공급하고 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지의 과다 분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홀몬 영향에 의한 주장도 있는데 즉 피지는 안드로젠이라는 홀몬에 의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분비가 왕성하여 개기름처럼 번질번질하게 보여진다. 이 질환이 사춘기 이전과 내시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적으로 선천성 지루성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한을 촉진하는 조건에 의해 악화되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악화요인

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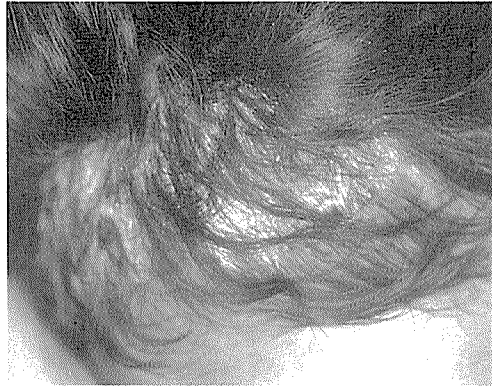
최근에 호지성 다형성(好脂性 多形成) 균인 “피티로스 포름 오발레”가 이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피부염이 없는 경우에도 풍부히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의 우유, 버터, 크림, 치즈 및 초콜릿 등의 지방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치료로서는 머리는 일주일에 2~3회 두꺼운 딱지를 부드럽게 하는 각질용해제가 첨가된 타르, 셀레니움 설파이드 및 진크 피리티오네이트 등이 함유된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는다.

최근에는 마치 원인을 곰팡이(비듬균?)로 과대 선전하여 항진균제가 포함된 샴푸를 과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지가 덮힌 부위나 비듬이 있는 부위는 스테로이드제제의 연고나 용액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머리 이외의 부위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부신피질 홀몬제인 스테로이드 제제는 효과가 좋은 반면 남용해서 복용하면 얼굴이 붓고 혈관이 확장되며 털이 많이 나며 색소침착, 골연화, 월경불순, 고혈압, 소화성 궤양, 당뇨나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 얼굴, 앞가슴, 귀를 비롯해 간혹 전신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결핵의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국소적으로 장기간 바르면 모세혈관확장증(실핏줄 늘어남), 자반, 선상위축, 붉은 안색, 피부 위축 및 궤양 치유의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간혹 과도한 피지의 분비로 여드름이 생겼을 때에는 피지의 분비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피부의 각질제거의 효과가 있는 비타민 A 성분의 로이쿠텐이라는 약제를 경구 투여하기도 하지만 이 약제는 입술이 갈라지고, 안구건조증, 두통, 간기능 장애 및 태아 기형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질환은 20~30대 남성에 발생 시 남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초기 탈모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필자=중대 부속 용산병원 피부과〉